

< 추가 진술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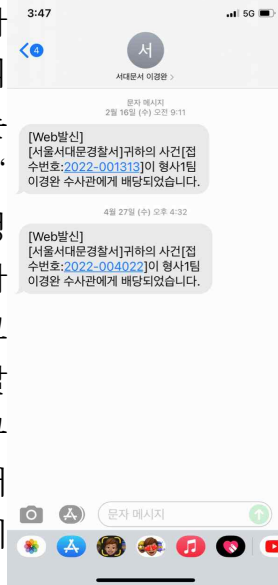
사건번호: 2023항고1208

항고인 : 곽춘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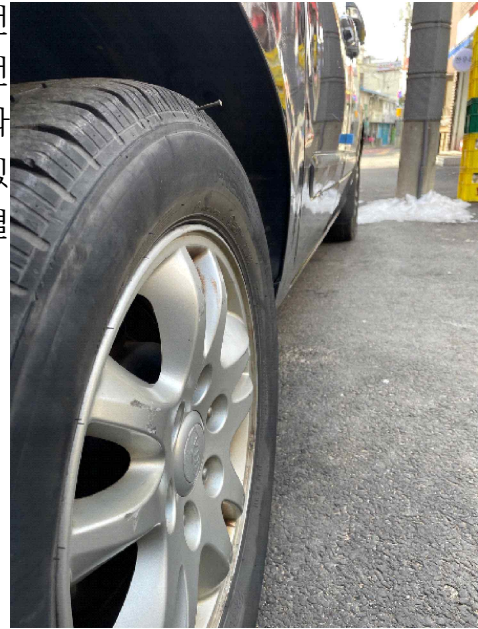
피의자 : 이경오, 임경택, 조상환, 서대문 경찰서장.

1. 이경오 수사관이 각목 폭행 사건(2022년 4월 27일) 2개월 전에 발생한 자동차 타이어 앞바퀴 못 박힌 사건(2022년 2월 16일)에서 현장조사도 없이 전화 두 통화로 사건을 종결시킨 후 부터 생긴 일련의 주정차 위반 사건들(서대문구청 교통과 와는 같은 장소에서 17년간 영업을 했지만,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축소하고 배후의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거기록과 사진으로 소명합니다.

증거1) : 이경오 수사관의 메시지 전송 : 두 메시지의 시간 차이가 2개월이 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증거 2의 타이어에 못박은 사건을 접수했을 때 받은 것으로 그냥 전화 2통화하고 종결한 사건입니다. 증거1의 두 번째 메시지는 2개월 후에 각목폭행사건으로 지구대에서 서대문서에 가서 진술하라고 경찰차로 데려다 주고 20분 가량 기다렸는데 담당 수사관이라는 분이 와서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도 되냐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서대문 정문 현관을 빠져나오는데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문자메시지를 보고서야 “무언가 잘못 되었다”고 깨닫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 청문감사실에 올라간 것입니다. 수사관 교체를 신청하고 돌아왔는데, 1시간 후쯤 이경오 수사관으로부터 왔습니다. 교체를 취소해 달라, 내일 각목폭행범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올리겠다는 당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각목 폭행범을 사주한 자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이경오 수사관께서는 이미 차량 못박은 사건에서 부실 수사한 이력이 있으니 다른 분께 양해를 구한다고 엄중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필요하면 통화내역 제출하겠습니다.) 그 이후는 사건내용과 같습니다.



증거2) : 자동차 앞바퀴 타이어 못 박힌 사건 : 출두한 경관이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한 사건인데, 이경오 수사관이란 분이 접수하였고 전화 2번 받은 것이 수사한 전부입니다. 근처에 있는 cctv도 조사하지 않고 전화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2. 각목폭행 사건과 타이어 못박은 사건은 아주 오래된 사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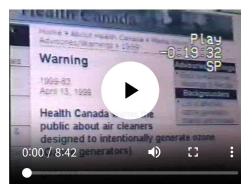
고소인과 관련된 많은 사건 중 검찰에서 20여년 동안 기소해 준 것은 두 건인데 모두 중앙지검에서 서초서로 이관한 사건입니다.

첫번째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인데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접수 받고 담당 검사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사건 전모를 말했고 그 후 서초서로 이관되었는데, 황당하게 기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나중에 추적 60분에 나가게 되었고 수사담당자의 해명이 방송되었습니다. 내용은 수사관은 소비자보호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전체를 지정해서 검색을 요구했는데, 당시 수사관이 받은 데이터 결과는 특정 년도의 것만 결과를 내어서 수사관에게 제출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는 방송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지요. 8분 42초 동영상입니다.

<https://air365.net/miv2/b0yf>

위의 링크 글중에 동영상은 하나입니다.

<방송 주요내용 동영상>



그 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이나 지나서 이번 각목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처음 김아영 검사께서는 기소 건으로 결정했고 , 서초서로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20여년 진실을 위한 다툼을 벌여왔는데, 이것이 두 번째로 기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서에서는 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라서인지 마지못해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

실제 조사때에도 사건의 핵심인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하려하자 시간이 없다면 급하게 종결합니다. 이 각목폭행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안해서 검찰에 고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단순 각목폭행으로 첫날 부터 기소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당부했던 사건입니다. 고소인인 피해자의 요구는 단순각목폭행이 아니라 이를 시킨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고위직에 선이 닿아 있는 배후 조직이 10년 이상 감시하고 괴롭혀온 범행이 결국 각목 폭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 서초서에서는 17년 전과 똑같이 각하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만 놓고 보면, 해당 경찰관들은 기소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 이에 연루된 배후 조직이 경찰과 검찰, 법원내에 뿌리를 박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압력이나 청탁을 받아서

이런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7년전 서초서에서 기각했던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의 연속선 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두 사건 너무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검찰에서 기소해주고, 서초서로 이관 된후에 사조직의 압력으로 서초서에서 기각되는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17년 전에는 검사께서 직접 저에게 고소하라고 해서 고소한 사건인데도

결국에는 서초서에서 기각시켰고, 추적 60분에도 방영되게 된 것이지만
저는 아직도 억울하게 죄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16년이 지난 후에는 직접 배후 세력으로 부터 각목폭행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처음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도
그렇고

이번 각목폭행 배후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시간 억울함속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으며
기다려온 피해자의 누명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8.18
항고인 곽춘규